

# 중국 도·농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Effect on Income-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in China

南雪峰\*, 나승화\*\*

Nan, Xue Feng · Na, Seung-hwa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real situations of the income-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hich is focused on as one of the biggest issues revealed in the process of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to find out which factors will alleviate or deteriorate such income-gap, also to find out such factors will effect differentl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analyze it, six factors such as industrialization-ratio, urbanization-ratio, tertiary industry-ratio, the level of both governmental educational support and agricultural support, and Chinese dual-economic structure are considered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OLS regression analysis was implemented to the factor data for the period of 1986-2007 about Chinese 31 districts(castles and c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both industrialization factors and urbanization factors affect significantly to alleviate income-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as predicted, they also shows that dual-economic structur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the most biggest factors to enlarge the above mentioned income-gap. However, in accordance to the different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ern, central, and western districts the study shows that such factors will affect them differently respectively.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 eastern district governmental*

---

\* First Author, Visiting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Commerce, Yanbian University, China. (nanxf@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Aviation & Tourism, Koguryeo, College. (shna@kgrc.ac.kr)

*educational support factor will affect the most great influence to alleviate the income-gap, in central district industrialization factor will affect the most great influence to alleviate the gap, and western district governmental agricultural support factor will affect the most great influence to alleviate the gap.*

*Therefore, in solving the issue of income-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we recommend that it is necessary for more differential policy in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an unilateral policy to Chinese whole areas.*

Key Words: Income inequality, Effect factors, Urban/Rural Areas.

\*\*\*\*\*

## I. 서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소득격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격차 문제는 중국의 소비와 투자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발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소득격차 문제는 주로 도·농 간 소득격차, 지역 간 소득격차, 산업 간 소득격차, 서로 다른 所有주체 간 소득격차 그리고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내부의 소득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인 1985년 이전까지는 소득격차가 많이 완화된 상태였다. 이는 개혁개방 초기 중국정부가 도시개혁에 앞서 농촌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농촌주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뚜렷이 확대되기 시작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는 주로 동부와 중·서부 지역 간 소득격차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부지역 농촌주민 소득과 중·서부지역 농촌주민 소득 간의 격차는 동부지역 도시주민 소득과 중·서부지역 도시주민 소득 간 격차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내부에 존재하는 소득격차 역시 중국의 소득격차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임을 설명해준다. 또한 산업별로 볼 때, 중국에는 기존의 전력, 전기통신과 같은 고소득 독점산업들이 존재하며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업, 금융보험과 같은 산업들의 소득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고소득 산업과 저소득 산업 간 격차는 2000년에 이미 2.68배로 확대(韓文秀·尹艷霖·建林, 2003)되어 중국의 소득격차 문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서로 다른 소유제 기업 간의 소득격차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부분의 문제는 주로 국유기업 노동자와 비국유기업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격차가 존재하지만 李實(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전체 소득격차의 40%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가 중국의 빈부격차 형성의 주된 원인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도·농 간 소득격차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우선 国家统计局农调总队(1994)는 1978-1992년 기간의 통계수치를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원경제구조\*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도시화 발전 수준의 차이를 도·농 간 소득격차의 중요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금융발전 차원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석하기도 한다. 溫濤 등(2005)이 1952-2003년의 수치들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중국의 금융발전은 농촌주민들의 소득 증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章奇(2004)는 1978-1998년 기간의 각 성별 수치들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중국의 금융발전은 도·농 간 소득격차를 더 한층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향은 80년대 보다는 90년대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楊俊(2006) 등이 1978-2003년 기간의 시계열 수치들을 이용하여 금융발전과 도시주민 소득배분 간의 관계 및 금융발전과 농촌주민 소득배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금융발전은 오히려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소득의 불평등 수준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陸明(2005)의 연구에서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는 중국 정부의 도시중심의 발전정책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금융발전과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자들은 교육 등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설명하기도 한다. 賴德勝(1997)과 白雪梅(2004)는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 도·농 간 소득격차 간에는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의 학자들은 기술진보가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시하고 하고 있다. 紀玉山(2005) 등은 시계열 수치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술진보와 지식의 자본화가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楊新銘(2007)과 羅潤東(2008)은 도·농 간 소득격차는 도시와 농촌 내부의 노동력시장

\* 이원경제구조 : 중국이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도시에 대부분의 물적자본과 양질의 인적자본을 투입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경제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생산성 비교치로서 이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의 차이와 도·농 간 기술진보 격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내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분야의 연구들 중 중국어로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논문들이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의 원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31개의 성·시로 구성된 만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각 성·시별 특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없다. 둘째, 성·시별 특징을 고려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소수의 몇몇 논문의 경우에도 위에서 소개한 논문들처럼 중국의 도·농소득격차에 영향을 주는 특정요인 한 두 개만 선택하여 분석한 논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1985-2007년 기간 중국 30개 성·시\*\*의 지역별 패널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경우 어떤 요인들이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II. 중국 도·농 간 소득격차 현황

### 1. 전국 도·농 간 소득격차 현황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다소 완화되었다가 확대되고 또 잠깐 완화되었다가 더욱더 확대되는 발전단계를 걸어왔다. <그림 1>을 보면, 개방 초기인 1978년에 2.57배이던 도·농 간 소득격차는 1985년에 이르러 1.86배로 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동안 실행된 농촌개혁으로 농촌주민들의 실제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1986년부터 1994년의 기간 동안 도·농 간 소득격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5년의 1.86배로부터 1994년의 2.86배로 증가되었다. 이 시기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주된 원인은 개방초기의 농촌개혁 실행 이후 식량생산량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생산된 전부의 식량을 정부에서 구매하던 기존의 정책이 폐지되고 농민들은 총소득의 20%를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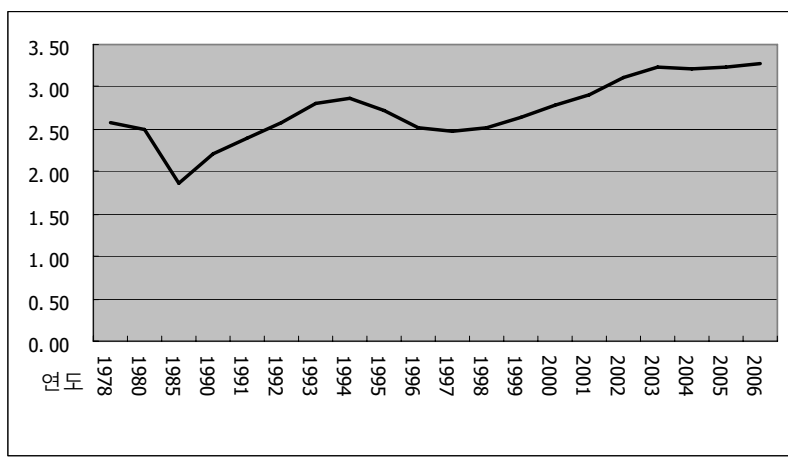
비록 1995년- 1998년까지 기간 동안 동남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999년부터는 더욱더 확대되어 2006년

\* 중국의 소득격차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ai F. and Du Y. (2006), Gustafsson B., and Wei Z., (2000), Kanbur R. and Zhang X., (1999), Khan A. R. and Riskin C., (2001), Knight J. and Song L., (1999), Li H. and Zhu Y., (2006), Meng X. (2004), Ravallion M. and Chen S., (2007), Tsui K. Y., (1991), Zhang Y. and Wan G., (2006) 등 참조.

\*\* 重慶의 경우, 설립된 기간이 오래지 않으므로 사천성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에 이르러서는 3.8배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원인으로는 현행 호적제도를 들 수 있다. 개방초기에 실시된 농촌개혁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수많은 농촌 잉여 노동력이 생겨났지만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을 엄격히 구분하는 중국의 호적제도 하에서 농촌 노동력은 자유롭게 도시의 비농업생산부분으로 이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농촌 주민들은 농업생산 이외의 분야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다. 도·농 간 소득 격차의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중국의 도시주민 중심의 보조금 지급제도를 들 수 있다. 현 제도 하에서 도시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물가, 주택, 교육, 의료, 교통 등 분야에서 총 소득의 2/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농촌주민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들은 소득 중 일부부분을 다음해의 생산물자 구입비로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순소득은 더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도·농 간 소득격차는 통계자료의 3.8배가 아닌 5배 또는 6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袁琳琳, 2007).



자료원: 각 연도의 《중국통계년감》

<그림 1> 전국 도·농 간 주민 소득비율

## 2. 지역별 도·농 간 소득격차 현황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별 발전 기반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도·농 간 소득격차도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85-2006년 기간의 동·중·서부지역\* 도·농

간 소득비율을 살펴보면 동부나 중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1985년의 1.57에서 2006년의 2.57로 증가하였으며 중부지역은 1985년의 1.69로부터 2006년의 2.93으로 증가하였으며 서부지역은 1985년의 2.18에서 2006년의 3.78로 증가하였다. 즉 동부지역보다는 중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중·서부지역 도·농 간 소득격차의 변화 추세 역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동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가 1985년의 1.57에서 1994년의 2.2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몇 년간 주춤하다가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이르러 2.57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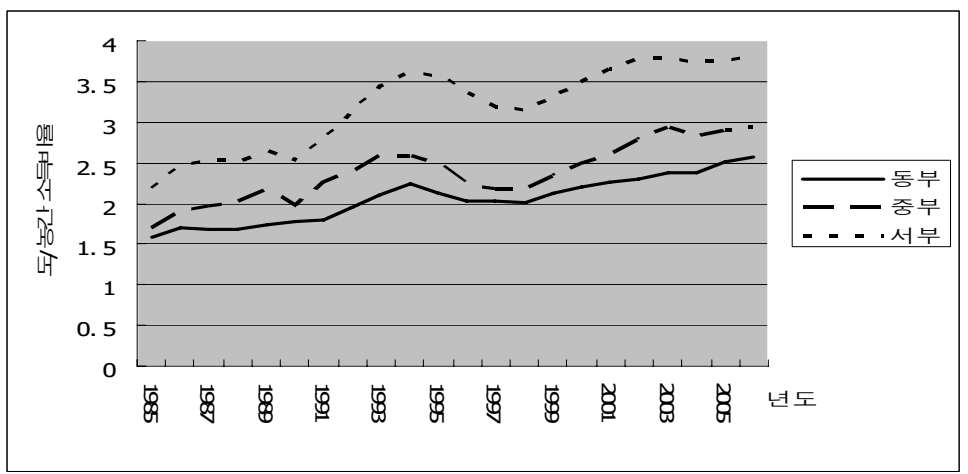
연도	동부	중부	서부
1985	1.574901	1.691319	2.181951
1986	1.691580	1.918412	2.446417
1987	1.674578	1.965496	2.543985
1988	1.674153	2.000088	2.505942
1989	1.730880	2.159483	2.652806
1990	1.780760	1.972205	2.536557
1991	1.800724	2.259946	2.778151
1992	1.950962	2.388646	3.114953
1993	2.108025	2.596402	3.436239
1994	2.234304	2.579889	3.616709
1995	2.116924	2.472166	3.577053
1996	2.031326	2.233631	3.361933
1997	2.035336	2.183176	3.185244
1998	2.018710	2.186562	3.149432
1999	2.129532	2.347662	3.313046
2000	2.209495	2.494243	3.502835
2001	2.270197	2.618231	3.660701
2002	2.307126	2.779249	3.761720
2003	2.375598	2.940573	3.792905
2004	2.385159	2.837697	3.731824
2005	2.514726	2.905062	3.768621
2006	2.566436	2.938758	3.779826

자료: 국가통계국의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과 2005-2007년 『중국통계년감』에 근거하여 계산됨.

\*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를 동부지역(北京市, 天津市, 河北省, 遼寧성, 上海市, 江蘇성, 浙江省, 山東성, 廣東성, 海南성, 福建省), 중부지역( 山西省, 內蒙古自治區, 吉林省, 黑龍江성, 安徽省, 江西省, 河南省, 湖北省, 湖南省), 서부지역( 四川省, 貴州성, 雲南성, 陝西성, 甘肅성, 青海성, 寧夏回族自治區, 新疆自治區, 西藏自治區, 重慶시, 廣西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게 된다.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경우는 다소 비슷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바, 중부지역의 경우 80년대 말까지 약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잠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후 1998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1999년부터 다시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추세로부터 볼 때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부지역과 동·중·서부 지역 간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 역시 1992년 등소평의 남부 시찰 이후 동부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이때 이루어진 지역 간 격차는 1999년 이후, 중국정부가 서부 대개발을 표방한 이후에도 뚜렷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중·서부 지역 간에 존재하는 도·농 간 소득비율 격차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실시해온 지역불균형 발전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림 2>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비율



주: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 소득비율: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으로 나눈 값.

### III. 요인선정 및 연구모형

#### 1. 요인선정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형성원인은 주로 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의 경우 주로 정부정책으로 인한 도·농 주민 간의 기회의 불평등을 말하며 취업기회의 불평등, 교육기회의 불평등, 사회보장체계의 불평등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경제적 측면의 영향요인들로는 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이 특정 지역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밝힐 수 있는 것이지만, 경제성장과 소득격차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명백한 사실이다. 먼저 경제성장은 보편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고 취업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빈곤감소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비록 경제성장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제성장 자체가 소득분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빈곤율을 낮추고 지나치게 큰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소득격차는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경제성장과 관련된 변수들로는 주로 일인당 GDP, 투자율, 도시화율, 대외무역 의존도, 비농업 분야 경제성장율, 농업경제성장율, 농수산물 수매가격 지수, 농촌공업품소매가격, 이원경제구조, 지방재정의 농업에 대한 지지비중, 도로망의 밀집도, 전화 보급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성장과 달리 정부정책은 절대적인 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몇 십 년간의 경제발전 상황이 증명하듯이 중국의 경우 정부정책은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측면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을 다르게 관리하는 체제(城鄉分割管理體制)는 줄곧 유지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오늘과 같이 심각한 도·농 간 소득격차로 이어졌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비록 개혁개방 이후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중국정부의 도·농 분리관리체계의 기본적인 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변수들을 전부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어 이론적인 분석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계량화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제성장 관련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들 요인들과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1.1 이원경제구조(二元經濟構造): 이원경제구조는 도·농 간 노동생산성 차이를 나타내주는 경제지표이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공업화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

\* 陳迅 · 童華建(2007), “城市化與城響收入差距變動的實證研究”, 生產力研究, 第10期 P64-66..



하기 위하여 도시에 대부분의 물적 자본과 양질의 인적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생산성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이원경제구조가 심화될수록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begin{aligned} \text{이원경제구조}(S) &= \text{도시노동생산성/농촌노동생산성} \\ &= (\text{도시총생산액/도시근로자수})/(\text{농촌총생산액/농촌근로자수}) \end{aligned}$$

1.2.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 지원금과 농업관련 판공비의 비중(N)\*: 우선 지방정부의 농업지원자금은 국민소득의 재분배 과정에서 농업으로 흘러드는 순유입부분이다. 농업지원자금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농촌주민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재정지출은 주로 사회적 효과는 뚜렷하나 경제적인 효과는 부족한 농업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쓰이며 결과적으로 농촌주민 소득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비용의 지출 증가는 농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1.3.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교육관련 비용의 비중(EDU)\*\*: 많은 논문들에서는 지역의 대학생의 수를 인적자본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교육지출과 도·농 간 소득격차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정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교육관련 비용의 비중을 인적자본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로 한다. 정부의 교육·문화·위생 지출만 고려된 변수라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교육에 대한 지출을 나타낸 통계수치는 구할 수가 없다. 이 변수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오랫동안 도·농분리 관리체제가 실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비용 지출의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왔으므로 지방정부의 교육관련 비용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한계효용체감의 측면으로부터 볼 때 도시의 경우, 교육관련 투자가 이미 농촌보다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투자 효과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1.4. 공업화율(I): 이 변수의 경우 각 지역 공업부문의 생산액이 전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공업화로 더욱 많은 농촌주민들의 공장 취업이 가능하게 되

\* 彭鍛鍊(2007), “政府農村投入對城響收入差距的長期影響”, 財經論叢, 第3期,P22-29.

\*\* 彭鍛鍊(2007), “政府農村投入對城響收入差距的長期影響”, 財經論叢, 第3期,P22-29.

며 이는 이들 주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정책을 실시해 왔다.

1.5. 3차 산업비중(T)\*: 3차 산업의 경우 농촌보다는 도시의 경우 발전 가능성이 더 풍부하며 특히 이들 산업에 속하는 정보통신산업, 하이테크산업 등의 경우는 농촌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3차산업 노동력의 증가는 대부분 도시주민 취업기회의 증가와 도시주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1.6. 도시화비율(U): 각 지역의 도시화 비율은 거주지 원칙에 따라 도시주민 수가 전체 주민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농촌주민 자체의 수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농촌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시화비율의 증가는 도·농간 소득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7. 1인당 실질 총생산액(PGDP)\*\*\*: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실질 총생산액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나타내려고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第1次全國經濟普查年鑒>에서 7개 변수들의 수정된 수치자료들을 전부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의 2005년 이전의 수치는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에서 2005년 이후의 자료는 《中國統計年鑒》을 참조하였다. 한편, 자기상관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인당 실질 총생산액에 자연로그를 취하기로 한다. 그리고 Kuznets(1955)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1인당 실질 총생산액의 자연로그 값에 평방을 취하여 한 개의 변수로 고려하기로 한다. 만약 지역의 경제성장과 도·농 간 소득격차 간에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1인당 실질 총생산액에 로그를 취한 변수의 회귀계수가 0보다 큰 반면 1인당 실질 총생산액의 자연로그 값에 평방을 취한 변수의 회귀계수는 0보다 작게 나타날 것이며, 이 경우 Kuznets(1955)의 역“U”자 가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 陳迅 · 童華建(2007), “城市化與城響收入差距變動的實證研究”, 生產力研究, 第10期 P64-66,.

\* 陳迅 · 童華建(2007), “城市化與城響收入差距變動的實證研究”, 生產力研究, 第10期 P64-66,.

\*\* 陳迅 · 童華建(2007), “城市化與城響收入差距變動的實證研究”, 生產力研究, 第10期 P64-66,.

\*\*\* 陳志剛 · 師文明(2008), “金融發展,人力資本和城響收入差距”, 中南民族大學學報, 第2期,P144-149.

물론 기존의 연구 현황 및 통계자료의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7개의 영향 요인을 선정하였지만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벽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실증적인 측면에서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간 소득격차 형성원인에 대해 비교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연구모형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더불어 Kuznets(1955)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자기상관을 배제기 위해 모든 변수들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따라서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변수들의 변화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대학생의 비중을 인적자본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변수까지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해석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의 가능성을 해석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로 확인하여 상관관계가 낮은 변수만 모형에 포함시켰다. 결과 대학생 비중으로 나타낸 변수의 경우 지방정부의 교육·위생·문화비용을 나타내는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체 모형에 대한 설명력도 지방정부의 교육관련 지출보다는 설명력이 작은 것을 나타내 모형에서 배제시켰다.

$$\text{LnCR} = b_0 + b_1 \text{LnN} + b_2 \text{LnI} + b_3 \text{LnS} + b_4 \text{LnEDU} + b_5 \text{LnU} + b_6 T + b_7 \text{LnPGDP} + b_8 \text{LnPGDP}^2 + \varepsilon_{i,t} \dots \dots \dots (1)$$

CR: 중국 각 지역의 도·농간 소득격차를 나타낸다. 지역 도시주민의 인구 당 가치분소득을 농촌주민 순소득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이다.

N: 각 지방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 지원금과 관공비용의 비중을 나타낸다.

I: 각 지역 공업부분의 생산액이 지역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S: 이원경제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 지역의 도시주민의 노동생산성을 농촌주민의 노동생산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도시주민 노동생산성은 도시의 총생산액을 도시주민 수를 나누어 구하였으며 농촌 주민 노동생산성은 농촌의 총생산액을 농촌주민 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EDU: 인적자본을 나타내기 위한 대체지표로서 지방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 교육, 위생 관련 사업비용의 비중을 나타낸다.

U: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각 지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도시주민의 비중을 나타낸다.

T: 각 지역의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제3차산업 생산액의 비중을 나타낸다.

PGDP: 각 지역의 총생산액을 나타내며 지역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각 변수들의 1986-2007년 기간의 통계수치들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서 중경시의 경우 설립된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사천성에 포함시켰다. 통계수치들은 주로 2006-2008년의 《中國統計年鑒》, <新中國五十五年統計資料匯編>, 《中國農村統計年鑒》, 《中國人口統計年鑒》 등에서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가 1986-1994년 기간 동안 확대되었다가 1995-1998년 기간 동안 다소 완화되었으며 다시 1999년부터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분석 시 전체 기간을 1986-1994, 1995-1998, 1999-2007년 등 3개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경제발전 상황이 다른 동부, 중부, 서부 지역에서 각 요인들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 IV. 분석결과

### 1. 전국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표 2>의 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1986-2007년 전체 기간 동안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유의한 요인들로는 공업화 요인과 도시화 요인이었다.

먼저, 공업화요인의 경우, 공업화 비중이 1% 상승할 때 도·농 간 소득격차는 0.269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화요인은 1986-1994년, 1995-1998년, 1999-2007년 등 모든 기간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한 결과로 중국이 경제발전 초기부터 실행했던 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화요인의 경우 도시화수준이 1% 상승할 때 도·농 간 소득격차는 0.045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1986-2007년 전체 기간 동안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9년 이후에는 도시화 비중이 1% 상승할 때, 도·농 간 소득격차가 0.1099%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시화를 통해 도시에 유입되는 농촌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농촌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농촌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은 많

아저 이들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므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완화되게 되기 때문이다. 제 3차산업 비중요인의 경우, 제3차산업의 비중이 1% 증가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0.037%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차산업에는 기술밀집형 산업 뿐만 아니라 노동밀집형 산업도 포함되며 노동밀집형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량은 기술밀집형 산업 보다 훨씬 많으므로 제3차산업의 발전은 농촌노동력 유입을 가속화시키므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전국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1986-2007	1986-1994	1995-1998	1999-2007
$\ln I$	-0.2693*** (-16.812)	-0.1532*** (-5.759)	-0.3036*** (-7.073)	-0.2738*** (-5.911)
$\ln S$	0.4602*** (25.776)	0.5022*** (12.001)	0.2684*** (5.708)	0.3431*** (7.271)
$\ln EDU$	0.1565*** (4.226)	0.2507*** (3.572)	0.1459 (1.224)	0.0272 (0.277)
$\ln U$	-0.0452*** (-3.251)	-0.0246 (-1.118)	0.0348 (1.072)	-0.1099** (-2.106)
$\ln T$	-0.037 (-1.594)	0.0023 (0.038)	-0.1421 (-1.409)	0.0141 (0.332)
$\ln N$	0.0278*** (2.858)	0.087** (2.467)	-0.0073 (-0.159)	0.1362*** (3.364)
$\ln PGDP$	0.999*** (13.442)	0.9311*** (3.434)	-0.4661 (-0.653)	-0.3661 (-0.58)
$\ln PGDP^2$	-0.0571*** (-12.804)	-0.0586*** (-3.314)	0.0158 (0.386)	0.0169 (0.503)
표본 수	756	270	216	270
Adj $R^2$	0.5795	0.6973	0.748	0.4595
DW통계치	1.615	1.552	1.708	1.841
F값의 유의도	0.0001	0.0001	0.0001	0.0001

\*\*\* p<0.01, \*\* p<0.05, \* p<0.1

1986-2007년 기간 동안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도·농 간 노동생산성 비교비율 즉 이원경제구조 요인이었다. 이원경제구조가 1% 심화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무려 0.4602%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을 알 수 있었다. 이원경제구조가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1994년 이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회귀계수 0.5022) 1995-1998년 기간에 다소 작아졌다(회귀계수 0.2684) 1999년 이후, 다시 커진 것으로(회귀계수 0.3431) 나타났다. 만약 농촌의 노동력이 자유롭게 도시로 이동할 수 있고 전통 농업분야의 잉여 노동력이 기타 공업 분야로 이동할 수 있다면 현재의 이원경제구조가 유효하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토지자원의 부존상태에 비해

농촌인구와 노동력은 많이 남아도는 현실이며, 이는 농촌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져 도·농 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게 된다. 교육관련 지출비중 요인과 농촌관련 지출비중 요인의 경우 예측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교육관련 지출비중이 1% 증가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0.1565%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 분야에 취직이 가능하게 되므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완화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교육자원 분포가 아주 불균형하여 대부분의 양질의 인적자본은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역시 도시지역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교육지출 역시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투입되며 아주 적은 부분만이 농촌 지역에 투입된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관련 지출이 증가되면 될수록 도시지역 인적자본의 양과 질은 더욱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이것이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정부 교육지출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바로잡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로부터 보게 되면 1986-1994년 기간의 경우 정부의 교육관련 지출 비중이 1% 증가하면 도·농 간 소득격차가 0.25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1995-1998년 기간에는 그 영향이 0.1459로 낮아졌으며 1999년 이후에는 0.0272로 대폭 하락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는 정부의 교육관련 지출 증가가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정부의 농촌관련 지출 비중 ( $\ln N$ )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예측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치가 나타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존재한다. 우선 정부의 농촌지원 관련 지출항목에는 분석에 사용된 농업생산지출과 농업, 임업, 수리업(水利業) 관련 업무비용 뿐만 아니라 농업기본건설지출, 농업연구개발비용, 농촌구제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의 경우 1986-2007년 기간 동안 30개 성·시의 수치들을 구할 수가 없어 일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생산지출과 제반 업무비용만 정부의 농업지원지출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변수 자체가 정부 재정의 농업지원 효과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성이 있다. 庄子銀·鄒薇(2003)는 정부의 농촌지원 관련 지출 항목의 경우 비용이 효과보다 더 큰 폐단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농업관련 정부지출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전체 농업생산 비용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이 부분 지원금이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역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이 낙후한 지역일수록 이 부분 지원금은 농촌주민 소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n PGDP$ 의 회귀계수의 부호는 유의한 (+)로 나타나

1986-2007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ln PGDP2$ 의 회귀계수의 부호는 (-)로 나타나 중국의 경우, Kuznets의 역 "U" 현상이 존재하며, 중국의 소득배분 상황은 아직 역"U"자의 상승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지역별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 2.1. 동부지역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각 요인들이 동부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986-2007년 기간 동안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공업화요인과 인적자본 요인이었다.

<표 3> 동부지역 도·농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1986-2007	1986-1994	1995-1998	1999-2007
$\ln I$	-0.2003*** (-6.145)	-0.1497*** (-3.014)	-0.1401** (-2.041)	-0.1047* (-1.585)
$\ln S$	0.409*** (12.992)	0.4308*** (6.211)	-0.083 (-0.617)	0.1975*** (2.885)
$\ln EDU$	-0.1787** (-2.365)	0.0928 (0.768)	-0.1674 (-0.959)	-0.3064*** (-2.909)
$\ln U$	0.0159 (0.593)	0.0303 (0.933)	0.0262 (0.462)	0.0269 (0.457)
$\ln T$	0.2008*** (4.655)	0.1841** (2.413)	-0.2694 (-1.18)	-0.0154 (-0.187)
$\ln N$	0.2743*** (7.104)	0.29*** (3.821)	0.0634 (0.573)	0.2348*** (4.728)
표본 수	242	99	44	99
Adj $R^2$	0.5633	0.6166	0.5023	0.4004
DW통계치	1.503	1.865	1.667	1.525
F값의 유의도	0.001	0.001	0.001	0.001

\*\*\* p<0.01, \*\* p<0.05, \* p<0.1

동부지역의 경우, 공업화 비중이 1% 증가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0.200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경우 1986-1994년 기간에 -0.1497이던 공업화요인의 회귀계수가 1995-1998년 기간에는 -0.1401로 줄어들고 1999-2007년 기간에는 더욱 줄어들어 -0.1047이 됨으로써 공업화를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요인의 경우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롭다. 동부지역의 경우 인적자본요인 즉 정부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관련 비용의

비중이 1% 증가할 때 도·농 간 소득격차는 0.178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부지역과 서부지역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동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교육관련 지출이 실제로 농촌주민들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어 농촌주민들의 소득증가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와 같은 추세는 1997년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정부의 교육관련 재정지출의 효과적인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동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는 이원경제구조요인, 제3차산업비중요인, 정부의 농촌지원요인(lnN)이 있다. 분석결과, 동부지역의 경우, 1986-2007년 전체 기간 동안 이원경제구조가 1% 심화될 때 도·농 간 소득격차는 0.409%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동부지역의 경우 이원경제구조가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 이후에는 중서부지역보다 뚜렷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빨리 발전한 동부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노동생산성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차산업 비중의 경우, 1986-2007년 전체 기간 동안 도·농 간 소득격차를 꾸준히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농촌지원요인도 변수 자체의 적합성 문제와 이 부분 자금의 막대한 집행비용 문제 그리고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2. 중부지역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중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유의한 변수는 공업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특히, 공업화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보다는 중부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공업화를 진행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의 완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전체 기간 동안 중부지역의 공업화비중이 1% 증가할 때 도·농 간 소득격차는 0.27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업화요인의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1999년 이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부지역의 경우 동부지역과는 달리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이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lt;표 4&gt; 각 요인들이 중부지역의 도·농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1986-2007	1986-1994	1995-1998	1999-2007
$\ln I$	-0.276** (-2.403)	-0.2534** (-2.324)	-0.0797 (-0.617)	-0.4041** (-2.17)
$\ln S$	0.4067*** (7.336)	0.6029*** (6.907)	0.1218** (2.144)	0.2168** (2.178)
$\ln EDU$	0.0999 (0.74)	0.25* (1.624)	0.3227 (1.62)	-0.1865 (-1.365)
$\ln U$	0.031 (0.566)	0.0235 (0.372)	-0.0686 (0.937)	-0.1098* (-1.817)
$\ln T$	0.0714* (1.691)	0.3483*** (2.779)	-0.3102 (-1.641)	0.0219 (1.025)
$\ln N$	-0.0438 (-1.347)	-0.1229*** (-3.106)	-0.0018 (-0.048)	0.0485 (1.607)
표본 수	198	81	36	81
Adj $R^2$	0.5691	0.589	0.5865	0.5045
DW통계치	1.718	1.649	2.331	1.8
F값의 유의도	0.001	0.001	0.001	0.001

\*\*\* p&lt;0.01, \*\* p&lt;0.05, \* p&lt;0.1

## 2.3. 서부지역 도·농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에 효과적인 유의한 영향요인은 공업화비 증가 정부의 농촌지원 요인이었다(<표 5> 참조).

&lt;표 5&gt; 각 요인들이 서부지역의 도·농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변수	1986-2007	1986-1994	1995-1998	1999-2007
$\ln I$	-0.1989*** (-7.155)	-0.0469 (-1.08)	-0.5209*** (-11.226)	-0.2026*** (-6.493)
$\ln S$	0.6318*** (15.842)	0.6913*** (10.226)	0.5659*** (6.046)	0.2472*** (3.381)
$\ln EDU$	0.2034*** (2.608)	-0.2395* (-1.696)	1.1146*** (6.589)	0.2735*** (3.177)
$\ln U$	0.0612** (2.311)	0.0066 (0.174)	0.0293 (1.112)	-0.0436 (-0.988)
$\ln T$	0.3664*** (10.313)	0.4395*** (6.174)	-0.1638** (-2.139)	0.0093 (0.097)
$\ln N$	-0.0862*** (-4.282)	-0.2596*** (-5.359)	0.0074 (0.238)	0.032 (1.281)
표본 수	220	90	40	90
Adj $R^2$	0.6052	0.5995	0.8694	0.586
DW통계치	1.736	1.826	2.127	1.739
F값의 유의도	0.001	0.0001	0.0001	0.0001

\*\*\* p&lt;0.01, \*\* p&lt;0.05, \* p&lt;0.1

공업화비중 요인의 경우, 서부지역에서 공업화 비중이 1% 증가하게 되면 도·농 간 소득격차는 0.1989%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부지역이나 중부지역보다는 공업화의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부지역의 경우, 동부 지역과는 달리 정부의 농업지원이 1% 증가하는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0.0862% 완화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가 중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부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농촌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들이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상당부분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금에 의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의 농촌주민 소득에 대한 향상 효과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본금을 거의 정부지원에 의지해야 했던 1994년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영향요인은 이원경제구조요인, 정부의 교육 지원, 도시화, 제3차산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소득격차 문제는 중국 사회의 안정과 지속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격차에는 지역 간 소득격차, 소득격차, 산업 간, 소유주체 간 소득격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농 간 소득격차는 중국 내 전체 소득격차의 40%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특정된 한 가지 요인에 치중한 분석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한 동·중·서부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분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중국 전체와 중국 내의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의 정도와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결과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부터 1985년까지 도시보다 먼저 실시된 농촌개혁의 성과로 농촌주민들의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가 많이 완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6-1994년 기간에는 도시 위주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이후 1995-1998년 기간 동안 동남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도·농 간 소득격차도 다소 완화되었지만 경기회복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는 또다시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볼 때 동부지역 보다는 중부지역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욱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서부지역은 중부지역 보다도 그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어떤 요인들이 중국 전체와 동·중·서부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에 영

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공업화요인, 이원경제구조요인, 정부의 교육지원과 농업지원요인, 도시화요인, 제3차산업요인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의한 영향요인은 공업화요인과 도시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노동생산성 격차 즉 도·농 간 이원경제구조였다.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정부의 교육투자 증가와 농업생산 지원비용은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인은 공업화 요인과 인적자본요인이었으며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된 요인은 이원경제구조요인과 제3차산업 요인이었다. 특히 인적자본 요인의 경우 동부지역에서만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발전이 지속될수록 이 부분의 정부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공업화요인만 이 지역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영향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중·서부 세 개 지역을 비교할 때 중부지역의 공업화발전이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이원경제구조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3차산업의 발전도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영향요인은 공업화요인과 정부의 농촌지원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은 동부지역이나 중부지역과는 달리 서부지역에서만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영향요인은 이원경제구조요인, 정부의 교육지원, 도시화, 제3차산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특징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白雪梅(2004), 教育與收入不平等: 中國的經驗研究, 管理世界, 第6期, 53-58.
- 陳迅·童華建(2007), 城市化與城響收入差距變動的實證研究, 生產力研究, 第10期, 64-66.
- 陳志剛·師文明(2008), 金融發展, 人力資本和城響收入差距, 中南民族大學學報, 第2期, 144-149.
- 國家統·計局農·調總隊·課題組(2004), 城響居民收入差距研究, 經濟研究, 第12期.
- 韓文秀·尹艷霖·馮建林(2003), 中國居民收入差距研究綜述, 經濟研究參考, 第83期, 88-92.
- 紀玉山(2005), 技術進步與居民收入分配差距, 當代經濟研究, 第5期, 55-58.
- 賴德勝(1997), 教育擴展與收入不平等, 經濟研究, 第10期, 46-53.
- 李實(2007), 中國城響居民收入差距的重新估計, 經濟學研究, 第2期, 111-120.
- 陸銘(2005), 中國的收入差距, 投資, 教育和增長的相互影響, 經濟研究, 第12期.
- 羅潤東(2008), 技術進步下農村人力資本與收入差距的互動機制研究, 經濟研究, 第1期, 89-95.
- 彭鍛鍊(2007), 政府農村投入對城響收入差距的長期影響, 財經論叢, 第3期, 22-29.
- 溫淘(2005), 中國金融發展與農民收入增長, 經濟研究, 第19期, 59-62.
- 楊俊(2005), 中國金融發展水平與居民收入分配的實證分析, 經濟科學, 第2期, 71-73.
- 楊新銘(2007), 技術進步, 工資差距與人力資本形成, 當代經濟科學, 第5期, 19-25.
- 袁琳琳(2007), 中國城響收入分配差距的經濟效應分析和政府政策選擇, 首都師範大學學報, 第6期, 116-121.
- 章奇·劉明興(2004), 中國金融發展與城響收入差距, 中國金融學, 第1期, 26-31.
- 庄子銀·鄒薇(2003), 公共支出是否能促進經濟增長: 中國的經驗分析, 管理世界, 第7期, 4-12.
- Cai, F. and Du, Y. (2006), The changing nature of rural poverty and new policy orientations, *The Chinese Economy*, 39, 10-24
- Fan, S. (1991), Effects of technological change and institutional reform on production growth in chinese agriculture, *Am. F. Agric.* 73, 266-275.
- Gustafsson, B., and Wei, Z., (2000), How and why has poverty in China changed? A study based on microdata for 1988 and 1995, *China Quarterly*, 164, 983-1006.
- Kanbur, R. and Zhang, X., (1999), Which regional inequality? The evolution of rural-urban and inland-coastal inequality in China, 1983-199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7(4), 686-701.
- Khan, A. R. and Riskin, C., (2001), *Inequality and poverty in china in the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night, J. and Song, L., (1999), *The rural-urban divide: Economic disparities and interactions in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Li, H. and Zhu, Y., (2006), Income,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Evidence from China,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4(4), 668-693.
- Lin, J. Y., (1992), Rural reform and agricultural growth in China, *American Economic Review*, 82, 34-51.
- Meng, X. (2004), Economic restrictions and income inequality in urban Chin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6. 357-379.
- Ravallion, M. and Chen, S. (2007), China's (Uneven) progress against pover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2(1), 1-42.
- Tsui, K. Y., (1991), China's regional inequality, 1952-8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5(1), 1-21.
- Zhang, Y. and Wan, G., (2006), The impact of growth and inequality on rural poverty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4(4), 694-712.

2015년 4월 5일 논문 접수  
2015년 5월 24일 최종본 접수  
2015년 6월 2일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필